#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 최 혜 지

(서울여자대학교)

## [요약]

본 연구는 문화적응에 대한 다차원적 이론을 근거로, 문화적응유형을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유형으로 구분하여, 첫째, 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를 밝히고, 둘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판별하는 특성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조사연구로 설계되었으며 346명이주여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은 주변화유형이 37%, 통합유형이 30%, 분리유형 18%, 동화유형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국적, 낮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 유배우자는 통합유형, 긴 거주기간, 많은 자녀수, 낮은 회복력은 동화유형 이주여성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북한・중국・일본국적, 높은 연령, 높은 교육년수, 직업 없음, 무배우자, 낮은 대처능력은 주변화유형, 그리고 높은 연령, 높은 교육년수, 배우자와의 적은 연령차, 적은 수의 자녀는 분리유형 이주여성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국적, 연령, 교육년수, 유배우자, 자녀의 수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유의미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특성은 통합유형의 80% 이상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문화적응유형별로 해당 이주여성의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여 이주문 학습득과 원문화유지의 위험요인을 규명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주여성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문화적응, 문화적응전략, 이주여성,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Berry

## 1. 문제제기

문화적 차이는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 도시 거주자와 농촌 거주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도 문화적 차이는 존재한다. 즉 집단의 성격을 규

<sup>\*</sup>이 논문은 2008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정짓는 다양한 특성을 축으로 집단은 수없이 분할되며, 세분화된 하위집단은 인접한 하위집단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차이를 갖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은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의 일면으로 존재해 왔으며 과장되게는 대부분의 현대사회가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1980년 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뒤이은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에 힘입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남성 외국인은 44.3%가 증가한 반면 여성 외국인은 150%가 증가하는 등(통계청, 각 해당년도) 우리나라의 인종・민족적 다양화는 여성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주목할 점은 여성의 이주는 노동과 결혼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결혼을 통해우리사회에 영주하게 되며(문경희, 2006),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사회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이해하고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확대되어 왔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이주여성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실증적 지식은 제한되어왔다.

첫째, 문화적응에 대한 시각적 한계와 문화적응유형의 간과이다.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문화적응의 단일차원적 시각과 다차원적 시각이 존재한다. 단일차원적 시각은 문화적응을 이주민의 원문화가 이주문화로 대치되는 단일차원으로 설명하는 반면 다차원적 시각은 문화적응이 이주문화의 습득과 원문화의 유지라는 두 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반박한다. 특히 문화적응의 다차원적 시각은 이주문화의 습득정도와 원문화의 유지정도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적응은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하위유형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한다(Berry, 1982).

그러나 선행연구는 단일차원적 시각에 근거하여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습득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면 이주민의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한 연구(김진윤, 1997; 한만길, 1996)들은 한국의 사회제도와 문화학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습득과 동일시 한 시각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들어 다차원적 시각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연구에서 이론적 시각과 분석 사이에 괴리가 관찰된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을 고찰한 한 연구(문은희, 2007)는 이론적으로 다차원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의사소통, 한국문화의 강요, 자녀양육의 부담 등 한국문화습득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시각과 분석 사이의 불일치를 보였다. 또한 상당수의 연구(곽민정, 2008; 김희숙, 2006; 박은진, 2007)는 문화적응의 다차원적 시각을 이론적 근거로 상정하고도 연구의 전개는 단일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연구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강조할 것은 다차원적 시각에 근거해 문화적응의 유형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소극적이었던 까닭에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며, 이주여성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적 지식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둘째, 선행연구는 이주여성의 다양성에 주목하지 못했다. 이주여성 사이에도 출신국가,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간과할 수 없는 이질성이 존재한다(김이선 외, 2006). 그러나 선행연구는 이주여성을 동질적 집단으로 조명하여 이들 사이의 다양성은 소극적으로 다루었다. 일부 연구(남효진, 2008; 노하나, 2007; 이애란, 2003; 이윤효, 2007)는 연구대상을 특정 국가출신 또는 특정 이주목적을 지닌 여성

들로 제한하여 연구설계에서부터 이주여성의 다양성을 배제하였으며, 이주여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연 구도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송미영·박경희, 2008). 문화적응은 집단적 경험 임과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리내적 과정 (Berry, 2005)으로 이주여성의 심리적 특성 은 문화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친다(Berry, 1997). 그러나 선행연구는 이주여성의 다양한 특성을 간과함 으로써 이들 여성의 문화적응 지원을 위한 개입의 초점과 개입전략에 관한 실증적 지식을 생산해 내 지 못했다.

선행연구의 시각적 한계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습득으로 단선화하여 이주여성의 문화 적응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제한하였다. 또한 문화적응유형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주여성의 통 합적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적 증거가 부재하며. 특히 이주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배제하여 통합적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잠재적 개입영역을 축소하였다. 지적된 선행연구의 한계에 근거하 여. 본 연구는 문화적응유형과 관련된 이주여성의 다양한 특성을 탐색하고,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을 판별하는 특성을 밝혀 이주여성의 통합적 문화적응 지원을 위한 실증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이주여성의 개인, 가족, 심리적 보호요인 에 따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이주여성의 개인, 가족, 심리적 보호요 인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유의미하게 판별하는가?

## 2. 문화적응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동향

## 1) 문화적응이론

## (1) 문화적응의 개념 및 특성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조건에 맞추어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개인의 주체 적 의지와 능동성이 강조된 개념이다(김귀옥, 2000), 따라서 문화적응은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능동적 과정 또는 결과로 정의될 수 있다(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특히 이주민에게 문화적응(Acculturation)이란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이주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Redfield, Linton, and Herskovits, 1936: 149)"이다. 이상의 정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타문화로부터 한국사회 로 이주한 여성이 한국문화와 원문화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과 사고양식을 발전시켜가는 능동적 과정 또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변화의 총체로 개념화 하고 자 한다.

이주여성은 문화적응을 두 가지 차원에서 경험한다. 이주여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경험하는 집 단차원에서의 문화적 적응과 이주여성 각자가 개인적으로 겪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문화적응이다 (Berry, 2005), 심리적 차원에서의 문화적응은 타문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또는 자신이 속 한 집단의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즉 문화적 접점에 위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이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유사한 문화적응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이주여성 개인이 심리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의 경험과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이라는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각자는 심리적으로 차별적인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하며 그 결과 상이한 문화적응유형을 나타낼 것으로 전제한다.

문화적응은 또한 이주해 온 집단의 문화와 토착집단의 문화 사이에 지속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심리적 교환을 수반하기 때문에(Cabassa, 2003) 이주집단의 문화와 토착집단의 문화, 모두의 적응을 전제로 한다(Redfield et al., 1936). 따라서 문화적응은 이주집단 문화가 토착집단 문화로 동화되는 것을 지향하기보다 이주집단이 문화적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원문화에 집착하는 문화적 '반동성'을 수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여성이 자신의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반동성을 문화적응의 한 차원으로 고찰하며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정도와 이주문화습득 정도를 기준으로 이주여성 개인의 문화적응유형을 분류한다. 또한 문화적응은 문화적이며 동시에 심리학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연적' 특성을 갖는다 (Berry, 1980). 문화적응의 지연적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역시 이주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종속적 속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한다.

### (2) 문화적응이론과 문화적응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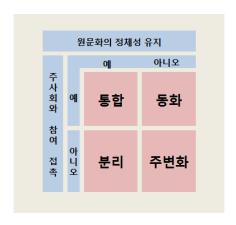
문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시각은 문화적응의 일차원성을 강조하는 단일차원문화적응이론과 문화적응을 다차원적 구조로 설명하는 다차원문화적응이론으로 대표된다. 단일차원이론은 문화적응을 원문화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주문화에 대한 몰입(immersion)으로 종결되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개념화한다(Gordon, 1995). 즉 단일차원이론은 문화적응을 이주집단의 원문화 상실과 상실된 원문화가 이주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문화적응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다차원이론이 소개되면서 단일차원이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다차원이론은 문화적응이란 이주집단의 원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이주문화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Marin and Gamba, 1996). 원문화에 대한 방향성이란 이주집단이 원문화를 유지하거나 상실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주문화에 대한 방향성이란 이주문화를 거부하거나 학습한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다차원이론은 문화적응이란 원문화상실과 이주문화습득이 통합된 일차원적 과정이 아니며 원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이주문화에 대한 방향성이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다차원적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Berry(1997)는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양상은 원문화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와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개입하는 정도를 뜻하는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사회에의 참여를 추구하는 유형을 통합유형(integration)으로 분류한다. 새로운 이주문화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추구하지만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에는 소극적인 유형은 동화유형(assimilation)에 해당한다. 역으로 원문화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에 가치를 두는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의 상호작용에는 소극적인 유형은 분리유형(separation)으로 구분된다. 끝으로 원문화유지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에도 관심이 없는 유형 을 주변화유형(marginalisation)이라 한다. Berry(1997)에 따르면 문화적응의 네 가지 유형은 이주민 에게 문화적응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하며, 특히 통합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토착집단의 태도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일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Cabassa, 2003), 개인이 어 떤 유형의 문화적응유형을 보이는가는 곧 원문화와 이주문화의 충돌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개인이 어 떻게 해결하는가와 관계된다. 즉 동화유형은 원문화를 포기하고 이주문화를 판단의 근거로 선택함으 로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리유형은 이주문화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원문화를 고수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Berry, 2005).

Berry의 문화적응의 다차원이론은 문화적응에 대한 후속연구들의 이론적 근간을 제공해 왔다. 학자 마다 선택한 용어에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문화적응을 원문화의 정체성과 새로운 문화의 참여라 는 두 차원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며, 이들 차원을 기준으로 문화적응유형을 분류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Mendoza와 Martinez(1982)는 문화적응은 '지배문화에의 동화'와 '부정적 문화적 소멸'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적 저항, 문화적 변화, 문화적 협력, 문화적 변용의 네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Cuellar, Arnold, Maldonado(1995)는 Berry의 이론에 근거해 문화적응은 '원문 화를 유지하는 정도'와 '이주문화를 습득하는 정도'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문화적 응유형 역시 Berry의 이론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1〉 Berry의 문화적응의 차원과 유형

Atkinson, Morton, Sue(1998)의 소수민족 정체감 형성 모델에 의하면 이주민의 원문화와 이주문화 에 대한 태도는 이주기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주초기에는 원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주문화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높으며 적응과정을 거치면서 초기평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주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고 두 문화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재인용). Atkinson 과 동료들에 의하면 이주여성은 이주초기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과 원문화에 대한 반감을 특징으

로 하는 동화유형을 보이며 이후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초기의 호감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원문화에 대한 초기반감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분리유형으로 조정될 것으로 가정된다. 이후 일정한 적응기간을 거쳐 한국문화와 원문화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이루어져 통합 또는 기타의 적응유형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Atkinson과 동료들은 이주문화와 원문화에 대한 태도가안정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복순·차보현, 2006)에서 3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을 머문 이주여성 사이에서도 문화적응유형의 변화와 안정화가 관찰되었다.

## 2) 선행연구

### (1) 이주여성 문화적응에 대한 국내연구의 동향

문화적응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기에 앞서 이주여성의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2004년 말 현재 이주여성 수는 153,356명에 달하며 2007년 한해만도 22,350명의 외국여성이 영주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통계청, 각해당년도).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분포는 중국이 72.3%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이 9.6%, 일본이 4.7%, 필리핀이 3.7%, 몽골이 1.9%, 미국이 1.3%, 그리고 태국과 러시아가 1.2%를 차지했다(통계청, 2008). 이들 여성의 49%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20%는 6개 광역시에 거주하며, 31%의 여성만이 농어촌을 포함한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 실태조사(설동훈 외, 2005)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34세로 배우자와 평균 7살의 연령 차이를 보였으며, 41%의 여성이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고 있었다. 이주여성의 부부만족도는 한국 부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여성은 배우자와 갈등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0년 외국인 증가로 인해 대두된 다문화 논의를 계기로 이주여성 연구가 확대되었으며 초기에는 이주여성의 실태(예: 강원도, 2001: 박현정, 2004)와 정책적 개입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가족폭력을 비롯한 부부 및 가족관계(양점도, 2006: 양정화, 2004, 윤형숙,2004), 사회적 통합(김현숙, 2008: 이주연, 2008), 정신건강(양옥경·김연수, 2007)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이주여성 연구들이 소개되었으나 문화적응을 고찰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고찰한 연구들은 문화적응의 실태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집중해 왔다. 우선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실태를 살펴본 연구들은 주제의 특성상 주로 질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문화적응의 문제들을 도출했다. 경기북부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이용하는 이주여성의 사례를 분석한 유영은(2006)의 연구는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언어교육의 강화,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하게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여가실태를 분석한 문은희(2007)의 연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문화의 강요, 차별과 편견, 사생활 침해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의 중심주제로 도출하고 있다.

이들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는 문화적응의 다차원적 시각을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함에 도 질적 자료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시각은 문화적응의 일차원적 시각에 고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의 중심주제가 이주문화습득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편중되어 기술되며 원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는 주변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한국문화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이 이주문화습득 차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 거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경제적 수준, 남편과의 연 령차, 남편에 대한 만족도, 이웃과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며(박은진, 2007: 이윤효, 2007), 이주여성 의 우울, 불안,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희숙, 2006, 박은진, 2007; 이인선, 2004). 그런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일부 연구 또한 다차 원적 시각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연구의 전개는 이론적 시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 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문제로 이들 연구는 주로 차별경험. 언어소통. 법적 지위 등 을 통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함으로써 원문화유지의 차원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응유형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다. 문화적응유형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노하나(2007)의 연구는 문화적응유 형을 개인이 한 시점에 동시에 지닐 수 있는 네 개의 독립적 특성으로 다루고 있어 개인의 문화적응 유형을 네 개 하위유형의 하나로 분류하지 못했다. 권복순과 차보현(2006)은 농어촌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인구ㆍ사회ㆍ이주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러나 문화 적응은 심리내적 과정으로 이주여성의 심리적 특성에 종속적임에도 이들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연구대상을 농어촌 거주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 (2)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된 특성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고찰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화적응유형을 결정하는 이주 문화습득과 원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①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는 원문화와 이주문화 사이의 유사성을 결정하여,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 영향을 미친다(Berry and Kim, 1987). 캐나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민데의 연구(Minde, 1985)에서 이민자의 원문화와 이주문화 사이에 기후, 음식, 언어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1987 재인용). 또한 베리의 연구(Berry, 1976)는 유럽문화와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캐나다 인디언 부족일수록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 아진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의 교육수준 역시 이주문화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는 교육적 수준 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은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인 이민자와 동남아시아 단기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민자의 교육적 수준은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과 부적 상관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and Kim, 1987). 교육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에 대한 정보와 사전경험의 가능성이 높아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지적 및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문화습득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Berry and Kim, 1987).

또한 이주문화와의 상호작용은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토착민들과의 대화, 사교모임 참여, 스포츠 모임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and Blodel, 1982; Berry and Kostovik, 1983; Mok, 1985). 13개국 5000명의 이주청소년을 대상을 한 연구 역시 통합유형과 동화유형을 지향하는 청소년 집단의 이주언어 유창도(proficiency)가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제시해 이주언어의 사용과 이주문화습득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함을 시사했다(Berry, Phinney, Sam, and Vedder, 2006). 유사하게 한국인 이주자는 영어 사용빈도가높을수록 캐나다 문화습득의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1984), 사회적참여는 이주문화습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새 문화에 대한 통제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이주민의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한다(Berry et al., 1987). 연령과 이주문화습득 사이의 연관성은 일관된 유형을 보이지 않는다. 이주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am과 Berry(1995)의 연구에서는연령이 낮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권복순과 차보현(2006)의 연구에서는 30세에서 34세 사이의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이주여성이 한국문화 습득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복순·차보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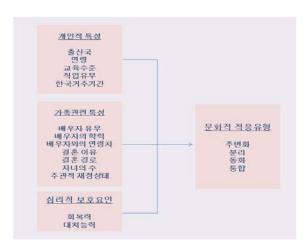
#### ②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를 고찰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권복순과 차보현(2006)의 연구에 의존하여 원문화유지와 관련된 요인을 정리하였다. 이주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은 원문화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의학력을 지닌 경우보다 높은 원문화유지정도를 보였다(권복순·차보현, 2006). 연령의 경우 35세 미만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정도가 35세 이상 보다 높아 낮은 연령이 원문화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복순·차보현, 2006). 흥미롭게도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국과 일본 출신의이주여성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출신의이주여성보다 낮은 원문화유지정도를 보였다(권복순·차보현, 2006). 이는 이주여성의 원문화와 이주문화 사이의 유사성이 원문화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한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국어 사용빈도가 낮을수록 원문화유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모국어 사용빈도는 원문화유지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Berry and Kim, 1987). 또한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청소년 사이에서 정신적 건강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Berry, Phinney, Sam, Vedder(2006)의 연구결과는 원문화유지와 정신적 건강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 외에 모국에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 경우, 통일교도인 경우, 자녀수가적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결혼한 경우에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복순·차보현, 2006).

#### ③ 심리적 보호요인과 문화적응

Lazarus와 Folkman(1984: 141)에 의하면 대처기제란 "개인의 한계를 넘어선 외·내적 요구를 다 루기 위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문제해결중심 대처기제와 정서의존적 대처 기제로 구분된다. 문제해결중심의 적극적 대처기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며, 정서의존적 수동적 대처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처기제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Ward, Leong, and Kennedy, 1998)에 의하면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 는 수동적 대처가 이주자의 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진경ㆍ 양계민, 2004 재인용). Schmitz(1992)의 연구에 의하면, 통합유형은 문제해결중심의 대처기제와, 분리 유형은 정서의존적 대처기제와. 그리고 동화유형은 문제해결중심과 정서의존적 대체기제 모두와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1997 재인용). 따라서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 은 이주여성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촉발하여 대처기제를 가동하게 되며. 적극적 또는 소극적 대처기제 의 사용에 따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된다.

회복력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발전된 개념으로, 외적 자극으로 인해 발 생한 부정적 상황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심리적 복원력을 의미한다. 회복력은 부정적 자극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거나 긍정적 결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Rutter, 1987). 회복 력은 부모의 이혼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Tabesand and Irish, 2000; Tabes, Kaufman, Adnopoz, and Racusin, 2001). 회복력이 개인의 문화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한 연구는 없으나 문화적응 역시 심리적 적응의 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회복력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응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언급된 이론과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을 분석하고, 이주여성의 특성을 통해 문화적 응유형을 판별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그림 1〉과 같이 상정하였다.



〈그림 2〉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 분석의 틀

## 3.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되었으며 표본은 비확률적인 의도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표집절차는 기관 스크리닝(screening), 기관선정, 대상자 선정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기관 스크리닝 단계에서 서울과 대전의 지역사회복지관과 전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의 진행여부를 물었다. 152개 기관을 스크리닝 한 결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진행해 온 기관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8곳,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 17곳, 대전시 지역사회복지관 5곳으로 파악되었다. 기관선정 단계에서는 스크리닝 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참여여부를 물었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15곳,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 13곳, 대전시 지역사회복지관 2곳이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했다. 이들 기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총 705부의 설문이 배포되었으며 380부가 회수되어 53.9%의 응답률을 보였다. 회수된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사례를 제외한 346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구성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의 문화적 유능감을 고려하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영어의 7개 언어로 작성하였다. 질문지 작성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 2)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2.35(sd=10.11)세이며, 최소 18세부터 최고 73세까지의 넓은 범주를 보였다. 연령대별 분포는 20대가 2.38%, 30대가 49.70%, 40대가 33.93%, 50대 이상이 5.06%로 30대와 40대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 분포는 중국이 29.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이 24.93%, 북한과 필리핀이 각각 17.10%, 일본이 8.99%, 태국이 2.03%, 그리고 캄보디아가 0.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4.52(sd=3.72)년이었으며, 최장 거주기간 20년부터 최단 거주기간 1년 미만까지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다. 한국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여성은 25.43%를 차지했으며, 2년부터 4년 사이가 39.88%, 5년부터 7년 사이가 17.63%, 8년부터 10년 사이가 7.80%, 11년부터 14년 사이가 6.36%, 15년 이상이 2.89%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유배우자가 8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미혼이 10.56%, 사별이 2.35%, 이혼이 2.05%, 별거가 1.47%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전체의 16.42%로 나타났다. 이주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9.66(sd=4.78)년이었으며,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상은 21.9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직업이 있는 여성은 34.63%에 그쳐 제한된 수의 이주여성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0대 이하	8	2.38
A 74	30대	167	49.70
	40대	114	33.93
연령	50대	30	8.93
	50대 이상	17	5.06
	소 계	336	100
	베트남	86	24.93
	북한	59	17.10
	일본	31	8.99
ラルフー	중국	101	29.28
출생국가	캄보디아	2	0.58
	태국	7	2.03
	필리핀	59	17.10
	소 계	345	100
	0-6년	69	22.62
	7-9년	58	19.02
학력	10-12년	111	36.39
	12년 이상	67	21.97
	소 계	305	100
	없다	219	65.37
직업	있다	116	34.63
	소 계	335	100
	2년 이하	88	25.43
	2-4년	138	39.88
	5-7년	61	17.63
거주년수	8-11년	27	7.80
	12-14년	22	6.36
	15년 이상	10	2.89
	소 계	346	100
	미혼	36	10.56
	기혼 유배우자	285	83.58
-1-	별거	5	1.47
결혼	이혼	7	2.05
	사별	8	2.35
	소 계	341	100
	.,		

〈표 2〉 조사대상자의 연령, 학력, 거주년도

	n	M	sd	Max	Min
연령	339	32.35	10.11	73	18
학력	307	9.66	4.78	24	0
거주년도	325	4.52	3.72	20	1

## 3)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 (1)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유형

#### ① 원문화유지도와 이주문화습득도

문화적응을 다차원적 시각에서 측정한 대표적 척도는 Berry, Trimble, Olmedo(1986)가 개발한 척도로, 문화적응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Berry의 척도는 문화적응의 유형이 상호배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Psychometric 특성상의 오류!)가 지적되어 왔다(Rudmin, 2006). Berry 척도의 한계에 따라, 본 연구는 Berry의 문화적응에 대한 다차원적 시각을 이론적 근거로 취하며 동시에 하위차원 사이의 독립성(orthogonality)을 확보한 Cuellar와 동료들의 Acculturation Rating Scale을 사용하였다(Cuellar의,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은 문화적응의 측정에 Berry의 다차원적 시각을 적용한 대표적 척도로, 원문화에 대한 생각, 이주문화에 대한 생각, 이주한 자국민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도는 Acculturation Rating Scale 중 원문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6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원문화유지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주문화습득도는 Cuellar와 동료들의 "Acculturation Rating Scale"중 이주문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6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이주문화습득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91로 높게 나타났다.

### ② 문화적응유형

Cueller와 동료들은 문화적응유형을 Berry(1997)의 이론에 근거해 통합유형, 분리유형, 동화유형, 주변화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류의 구체적 지침은 Cuellar와 동료들이 제시한 바에 따라 원문화유지도와 이주문화습득도 모두 평균이상은 상위집단, 평균미만은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원문화유지도와 이주문화습득도 모두 상위인 집단은 통합유형, 원문화유지도는 상위이나 이주문화습득도는 하위인 집단은 분리유형, 원문화유지도는 하위이나 이주문화습득도는 상위인 집단은 동화유형, 그리고 원문화유지도와 이주문화습득도 모두 하위인 집단은 주변화유형으로 조작화하였다.

#### (2) 이주여성의 특성

## ① 개인적 특성

• 교육

국가마다 학제편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교육적 수준은 초, 중, 고등학교 졸업 등

<sup>1)</sup> 동화와 분리는 상호배타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Berry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예:Berry, Kim, Power, Young, and Bujaki, 1989)에서 동화와 분리 사이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r=.33, p<0.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dmin, 2006).

으로 서열화하지 않고 제도교육에 참여한 총 교육년수를 물어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 ② 기족특성

## • 주관적 재정상태

재정적 상태는 '현재 가족의 경제상황은 어떻습니까'라는 하나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은 '매우 여유 있다'에서 '매우 어렵다'까지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높은 점수는 여유 있는 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 ③ 심리적 보호요인

## • 회복력(Resilience)

회복력은 Kathryn과 동료들(2003)이 개발한 'The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The Connor-Davison Resilience Scale'은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회복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 대처전략

대처전략은 Carver(1997)가 개발한 Brief COPE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28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다. 높은 점수는 높은 정도의 긍정적 대처전략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0.92로 높게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이주여성의 출신국가,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학력집단, 직업유무, 출신국을 떠난 이유, 한국을 선택 한 이유에 따라 문화적응유형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자녀수, 대처전략, 회복력이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주여성의 개인적. 가족관련. 이민관련. 심리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이 이들 여 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stepwise 선택을 통한 판별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외에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이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

구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연구문제 3
연구문제	문화적응실태	특성별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유형 예측
분석법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	판별분석

〈그림 3〉 연구문제별 분석방법

## 4. 연구결과

## 1)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이주여성은 평균 20.63(sd=4.88)점의 이주문화습득도를 보였으며, 최소 7점에서 최고 30점의 비교적 넓은 범주를 보였다.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도는 평균 22.56(sd=5.08)점으로 이주문화습득도 보다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최소 6점에서 최고 30점의 범주를 보였다. 이주문화습득도와 원문화유지도를 기준으로 분류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살펴보면, 이주문화습득도와 원문화유지도 모두가 평균 미만인 주변화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은 36.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문화습득도는 평균 미만이고 원문화유지도가 평균이상인 분리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은 17.63%로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이주문화습득도는 평균 이상인 반면 원문화유지도가 평균 미만인 동화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은 15.03%를 차지했으며, 이주문화습득도와 원문화유지도 모두 평균 이상인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은 30.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은 네가지 유형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통합과 주변화유형이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도와 원문화유지도

	n	M	sd	Max	Min
이주문화습득도	308	20.63	4.88	30	7
 원문화유지도	300	22.56	5.08	30	6



〈그림 4〉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별 분포도

## 2) 이주여성의 특성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

### (1)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 ① 출신국가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문화적응유형을 살펴보면, 북한출신 이주여성은 47.46%가 주변화, 27.12% 가 분리, 15.25%가 동화, 10.17%가 통합유형에 해당했다. 일본출신 이주여성은 35.48%가 주변화, 25.81%가 분리, 12.90%가 동화, 25.81%가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출신 이주여성 은 46.53%가 주변화, 21.78%가 분리, 14.58%가 동화, 그리고 16.83%가 통합유형을 보였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은 2명 모두 주변화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출신 이주여성은 57.14%가 주변화. 14.29%가 분리. 28.57%가 통합유형을 보였다. 필리핀출신 이주여성은 37.29%가 주변화. 10.17%가 분리, 18.64%가 동화, 33.90%가 통합유형을 보여 주로 주변화와 통합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베트남출신 이주여성은, 15.12%가 주변화, 9.30%가 분리, 15.12%가 동화, 60.47%가 통합유형을 보여, 통합유형을 보이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문화적응유형 분포

단위(n, %)

		북한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총 합
 주	n	28	11	47	2	4	22	13	
ナ 변	전체%	8.12	3.19	13.62	0.58	1.16	6.38	3.77	127/
<sup>번</sup> 화	문화적응 내 %	22.05	8.66	37.01	1.57	3.15	17.32	10.24	36.81
와	출신국가 내 %	47.46	35.48	46.53	100	57.14	37.29	15.12	
	n	16	8	22	0	1	6	8	
분	전체%	4.64	2.32	6.38	0	0.29	1.74	2.32	61/
리	문화적응 내 %	26.23	13.11	36.07	0	1.64	9.84	13.11	7.68
	출신국가 내 %	27.12	25.81	21.78	0	14.29	10.17	9.30	
	n	9	4	15	0	0	11	13	
동	전체%	2.61	1.16	4.35	0	0	3.19	3.77	52/
화	문화적응 내 %	17.31	7.69	28.85	0	0	21.15	25	15.07
	출신국가 내 %	15.25	12.90	14.85	0	0	18.64	15.12	
	n	6	8	17	0	2	20	52	
통	전체%	1.74	2.32	4.93	0	0.58	5.80	15.07	105/
합	문화적응 내 %	5.71	7.62	16.19	0	1.90	19.05	49.52	30.43
	출신국가 내 %	10.17	25.81	16.83	0	28.57	33.90	60.47	
	총 합	59 (17.1)	31	101	2	7	59 (17.10)	86	345
		(17.1)	(8.99)	(29.28)	(0.58)	(2.03)	(17.10)	(24.93)	(100)

각국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분포를 도식화한 〈그림 5〉에 의하면 일본 출신 이주여성과 중국 출

신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분포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북한 출신 이주여성도 이들 여성과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통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과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은 통합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은 주변화유형이 낮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 5〉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문화적응유형 분포도

문화적응유형이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를 문화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북한, 중국과 일본, 기타 동남아 국가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7.81$ , p(0.0001). 선행연구(Berry and Kim,1987)에 따라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북한, 일본, 중국출신의 여성은 한국문화습득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합과 동화의 유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주변화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지 않은 베트남출신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유형을 보였다.

<u> </u>							
		북한	중국·일본	동남아	총 합	$\chi^2$	
	n	28	58	41			
주변	전체%	8.12	16.81	11.88	127		
화	문화적응 내 %	22.05	45.67	32.28	(36.81)		
	출신국가 내 %	47.46	43.94	26.62	, ,		
	n	16	30	15			
분리	전체%	4.64	8.70	4.35	61		
ፒ덕	문화적응 내 %	26.23	49.18	24.59	(17.68)		
	출신국가 내 %	27.12	22.73	9.74	, ,		
	n	9	19	24		47.81***	
동화	전체%	2.61	5.51	6.96	52		
5월	문화적응 내 %	17.31	36.54	46.15	(15.07)		
-	출신국가 내 %	15.25	14.39	15.58	, ,		
	n	6	25	74			
통합	전체%	1.74	7.25	21.45	105		
ਰੱਖ	문화적응 내 %	5.71	23.81	70.48	(30.43)		
	출신국가 내 %	10.17	18.94	48.05	, ,		
	총 합	59(17.10)	132(38.26)	154(44.64)	345(100)		

〈표 5〉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문화적은 분포 교차분석

#### ② 연령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이 연령과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이주여성 의 연령차이를 분석하였다. 주변화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35.21세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분리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33.62세, 동화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33.33세로 나타났다. 반면,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은 27.68세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통 합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의 평균연령이 여타의 문화적응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의 평균연령 보다 유 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타문화를 쉽게 습득한다는 이민 연구의 결과(Sam and Berry, 1995)와는 일치하나 30대 초반 여성의 이주문화습득정도가 가장 높았다 는 권복순 · 차보현(200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 ③ 교육

분리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10.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변화유형에 해 당하는 이주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0.41. 동화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9.36. 통합유 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8.19년으로 나타났다. 분리와 주변화유형에 속한 이주여성 의 평균 교육년수가 동화나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적 수준이 높은 이주여성이 이주문화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으며 지적 수준이 높아 이주문화습득이 용이해진다는 선행연구(Berry and Boldel, 1982; Mok, 1985)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여성일수록 한국에서의 사회 · 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기대가 충 족되지 못했을 경우 이주여성의 적응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윤형숙, 2004).

p<0.05. p<0.01. \*\*\* p<0.001

		n	M	사후검증	F
	주변화	124	35.21	A	
연령	분리	61	33.62	A	F=12.24***
26	동화	51	33.33	A	df=3
	통합	103	27.68	В	

10.41

F=5.07\*\* df=3

〈표 6〉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연령과 교육년수의 차이

파이너스	분리	60	10.73	A	
<u> </u> 과육년수	동화	44	9.36	AB	
	통합	92	8.19	В	

111

주변화

### ④ 직업

직업유무에 따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살펴보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의 경우, 주변화유형이 42.01%, 통합유형이 22.83%, 분리유형이 20.55%, 동화유형이 14.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은 44.83%가 통합, 27.59%가 주변화, 16.93%가 동화, 11.21%가 분리유형을 보여, 통합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은 통합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높은 반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은 주변화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직업유무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 = 20.28$ , p(0.001). 직업이 있는 여성은 사회적 참여와 통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한국문화를 습득하며, 역으로 한국문화습득 정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취업의 가능성도 높아져 직업을 가진 여성이 높은 통합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7〉 이주여성의 직업유무 별 문화적응 분포 교차분석

		없다	있다	총 합	X <sup>2</sup>
주변화	n	92	32		
	전체%	27.46	9.55	124	
	문화적응 내 %	74.19	25.81	(37.01)	
	직업유무 내 %	42.01	27.59	, ,	
	n	45	13		
분리	전체%	13.43	3.88	58	
군니	문화적응 내 %	77.59	22.41	(17.31)	
	직업유무 내 %	20.55	11.21		
	n	32	19		20.28***
동화	전체%	9.55	5.67	51	
० भ	문화적응 내 %	62.75	37.25	(15.22)	
	직업유무 내 %	14.61	16.38	124 (37.01) 58 (17.31)	
	n	50	52		
통합	전체%	14.93	15.52	102	
<b>공</b> 립	문화적응 내 %	49.02	50.98	(30.45)	
	직업유무 내 %	22.83	44.83	, ,	
	총 합	219(65.37)	116(34.63)	335(100)	

<sup>\*</sup> p<0.05, \*\* p<0.01, \*\*\* p<0.001

<sup>\*</sup>p<0.05, \*\*p<0.01, \*\*\*p<0.001

#### ⑤ 한국거주기간

한국에 거주한 평균기간은 동화유형을 보이는 이주여성이 5.38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들 여성의 거주기간은 기타 유형의 문화적응 집단에 속한 이주여성의 평균 거주기간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은 4.89년으로 주변화유형을 보이는 이주 여성의 거주기간인 4.7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통합적 문화적응을 보인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은 3.64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들 여성의 거주기간은 기타 유형의 문화적응유형에 속한 이주여 성의 거주기간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주초기에는 이주문화에 호의적으며, 이후 이주사회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초기의 호의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 난 후 재평가가 이루어진다(Atkinson 외, 1998)는 일반적인 문화적응의 궤적을 지지한다.

〈표 8〉 문화적응유형별 한국거주기간의 차이

	n	M	사후검증
주변화	125	4.70	AB
분리	58	4.89	AB
동화	47	5.38	A
통합	95	3.64	В
	E 20E	+ ( 16 0)	

F=2.95\*(df=3) \*p<0.05, \*\*p<0.01, \*\*\*p<0.001

## (2) 이주여성의 가족적 특성

## ①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은 주변화유형이 34,04%, 통합유형이 34,04%, 분리유형이 16.84%, 동화유형이 15.09%를 차지해 주로 주변화유형과 통합유형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 자 이주여성은 주변화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50.82%, 분리유형이 21.31%, 동화유형이 14.75%, 통합유 형이 13.11%를 차지해, 주변화유형에 해당하는 여성이 유의미하게 많은 반면 통합유형에 속하는 여성 은 상대적으로 적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이주여성에게 배우자는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정보제공자, 교 육자로서 기능하기 때문에(유영은, 2006) 무배우자 이주여성은 한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자 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 이주여성의 배우자 유무 별 문화적응유형 교차분석

		유배우자	무배우자	총 합	$\chi^2$
	n	97	31		
주변화	전체%	28.03	8.96	128	
十번와	문화적응 내 %	75.78	24.22	(36.99)	
	배우자 내 %	34.04	50.82		
	n	48	13		
분리	전체%	13.87	3.76	61	
군더	문화적응 내 %	78.69	21.31	(17.63)	
	배우자 내 %	16.84	21.31		
	n	43	9		11.64**
동화	전체%	12.43	2.60	52	
공화	문화적응 내 %	82.69	17.31	(15.03)	
	배우자 내 %	15.09	14.75		
	n	97	8		
巨乱	전체%	28.03	2.31	105	
통합	문화적응 내 %	92.38	7.62	(30.35)	
	배우자 내 %	34.04	13.11		
	총 합	285(82.37)	61(17.63)	346(100)	

<sup>\*</sup> p<0.05, \*\* p<0.01, \*\*\* p<0.001

### ② 배우자 학력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미만인 이주여성은 40.70%가 통합유형, 30.23%가 주변화유형, 16.28%가 동화유형, 12.79%가 분리유형을 보였다. 배우자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이주여성은 41.44%가 주변화유형, 23.42%가 통합유형, 19.82%가 분리유형, 15.32%가 동화유형을 보여 배우자의 학력이 낮은 여성은 통합유형이 높은 반면 배우자의 학력이 높은 여성은 주변화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여성의 학력도 높을 가능성이 크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주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습득의 정도가 낮아 주변화와 분리유형에 속한 경우가 많다는 결과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졸미만 고졸이상 총 합  $\chi^2$ 26 46 주변 전체% 13.20 23.35 72 화 문화적응 내 % 36.11 63.89 (36.55)학력 내 % 30.23 41.44 22 11 n 전체% 5.58 11.17 33 분리 문화적응 내 % 33.33 66.67 (16.75)학력 내 % 12.79 19.82 14 17 7.79\* n 전체% 7.11 8.63 31 동화 문화적응 내 % 54.84 45.16 (15.74)학력 내 % 16.28 15.32 35 26 n 전체% 17.77 13.20 61 통합 문화적응 내 % 57.38 42.62 (30.96)학력 내 % 23.42 40.70 합 86(43.65) 111(56.35) 197(100)

〈표 10〉 이주여성 배우자의 학력별 문화적응유형 교차분석

### ③ 배우자와의 연령차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주변화유형에 속하는 이주여성의 경우는 7.66세, 분리유형의 경우는 7.37세, 동화유형의 경우는 9.8세. 통합유형의 경우는 12.11세로 나타났다. 통합이나 동화유형에 해당하는 이주 여성의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주변화유형이나 분리유형에 해당하는 이주여성의 배우자와의 연령차보 다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배우자와의 연령차가 많을수록 이주여성의 연령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이 용이하다는 연구결과(Sam and Berry, 1995)와 관 계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결혼이유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이주여성은 통합유형(40%)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어서 주변화유형(33,68%), 동화유형(18,95%), 분리유형(7,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문 화·종교적인 이유로 결혼을 선택한 여성은 통합유형이 47.06%, 주변화유형이 20.59%, 분리유형이 17.65%, 동화유형이 14.71%로 나타났다. 사랑 때문에 결혼한 여성은 주변화유형이 37.84%, 통합이 24.31%, 분리가 21.62%, 동화가 16.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유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사이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종교적 이유로 결혼한 통일교도 여성 이나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결혼한 여성의 경우 원문화유지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권복순,

<sup>\*</sup> p<0.05, \*\* p<0.01, \*\*\* p<0.001

차보현(2006)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표 11〉 결혼이유별 문화적응유형

		경제	사회·문화·종교	사랑	총 합	X <sup>2</sup>
	n	32	7	14		
주변	전체%	19.28	4.22	8.43	53	
화	문화적응 내 %	60.38	13.21	26.42	(31.93)	
	이유 내 %	33.68	20.59	37.84		
	n	7	6	8		
분리	전체%	4.22	3.61	4.82	21	
군더	문화적응 내 %	33.33	28.57	38.10	(12.65)	
	이유 내 %	7.37	17.65	21.62		
	n	18	5	6		9.95
동화	전체%	10.84	3.01	3.61	29	
<del>ठश</del>	문화적응 내 %	62.07	17.24	20.69	(17.47)	
	이유 내 %	18.95	14.71	16.22		
	n	38	16	9		
통합	전체%	22.89	9.64	5.42	63	
4月	문화적응 내 %	60.32	25.40	14.29	(37.95)	
	이유 내 %	40.00	47.06	24.32		
	총 합	95(57.23)	34(20.48)	37(22.29)	166(100)	

<sup>\*</sup> p<0.05, \*\* p<0.01, \*\*\* p<0.001

## ⑤ 결혼경로

배우자를 만난 경위에 따른 문화적응의 유형은, 직접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주변화유형이 3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만난 여성역시 주변화유형이 4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은 통합유형이 4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경로에 따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결혼경로별 문화적응유형

		직접/친지 및 지인소개	종교 행정기관소개	중개업체소개	총 합	x <sup>2</sup>
주변화	n	81	23	24		
	전체%	23.41	6.65	6.94	128	
	문화적응 내 %	63.28	17.97	18.75	(36.99)	
	경로 내 %	37.50	41.07	32.43		
	n	41	10	10		
ㅂㅋ	전체%	11.85	2.89	2.89	61	
분리	문화적응 내 %	67.21	16.39	16.39	(17.63)	
	경로 내 %	18.98	17.86	13.51		
	n	36	9	7		9.92
동화	전체%	10.40	2.60	2.02	52	
공화	문화적응 내 %	69.23	17.31	13.46	(15.03)	
	경로 내 %	16.67	16.07	9.46		
통합	n	58	14	33		
	전체%	16.76	4.05	9.54	105	
	문화적응 내 %	55.24	13.33	31.43	(30.35)	
	경로 내 %	26.85	25.00	44.59		
총 합		216(62.43)	56(16.18)	74(21.39)	346(100)	

<sup>\*</sup> p<0.05, \*\* p<0.01, \*\*\* p<0.001

## ⑥ 자녀의 수

동화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은 평균 1.76명의 자녀를 두어 나머지 문화적응유형에 속한 이주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수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양육이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원문화유지에는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지 역 다문화가정 주부의 경우에도 자녀가 많을수록 원문화에 대한 정체감이 낮다는 연구(권복순ㆍ차보 현. 2006)결과는 자녀의 양육이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⑦ 재정적 만족도

가족의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통합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의 만족도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화유형의 이주여성이 2.68, 주변화유형의 이주여성이 2.63, 분리유형의 이주여 성이 2.5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재정 만족도의 차이는 유 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주여성의 경제적 수준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윤효(2007)의 연구결과를 재검증 했다.

		n	M	사후검증	F	
	주변화	86	7.66	В		
배우자	분리	51	7.37	В	F=6.65***	
연령차이	동화	37	9.8	AB	df=3	
	통합	77	12.11	A		
	주변화	89	1.46	AB		
키너스	분리	45	1.28	В	F=2.58*	
자녀수	동화	34	1.76	A	df=3	
	통합	69	1.15	В		
	주변화	114	2.63			
재정 만족도	분리	60	2.53	NI/A	F=0.93	
	동화	50	2.68	N/A	df=3	
	통합	98	2.78			

〈표 13〉 문화적응유형별 배우자와의 연령차, 자녀수, 재정상황의 차이

## (3) 이주여성의 심리적 보호요인

#### ① 회복력

심리적 회복력은 분리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이 68.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합유형의 이주여성은 61.68, 동화유형의 이주여성은 61.44로 유의미하게 낮은 정도의 심리적 회복력을 보였다. 이는 심리적 보호요인이 취약한 여성일수록 이주문화습득에 적극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심리적 좌절이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이 낮은 여성은 이주초기에 형성된 한국문화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재평가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좌절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문화에 대한 초기의 호의를 그대로 유지해 온 결과일 것으로 추론된다.

#### ② 대처능력

대처능력 또한 분리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이 8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유형의 이주여성은 79.53으로 분리유형의 이주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정도의 대처능력을 보였으며, 이어 주변화유형 (78.84)과 동화유형(76.84)의 순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정도의 대처능력을 보였다. 분리유형의 이주여성이 회복력과 대처능력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분리유형에 속한 이주여성의 교육년수가 가장 높으며, 교육적 수준이 높을수록 효과적인 대처기제를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sup>\*</sup>p<0.05, \*\*p<0.01, \*\*\*p<0.001

		n	M	사후검증	F
위 H 과	주변화	101	65.67	AB	
	분리	50	68.64	A	F=2.15*
회복력	동화	38	61.44	В	df=3
	통합	82	61.68	В	
	주변화	125	78.84	В	
대처	분리	61	82.42	A	F=3.14*
내지	동화	52	76.84	В	df=3
	통합	104	79.53	AB	

⟨표 14⟩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별 회복력과 대처능력의 차이

## 3) 이주여성의 특성을 이용한 문화적응유형 판별

stepwise 선택법을 이용한 판별분석의 결과, 유배우자, 동남아시아, 자녀의 수. 연령. 교육년수가 이 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유의미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이주여성의 특성을 통한 문화적응유형의 판별분석 결과

변수	Partial R <sup>2</sup>	F			
유배우자	0.09	4.28**			
동남아시아	0.06	2.77**			
자녀의 수	0.04	2.12**			
연령	0.04	2.14***			
교육년수	0.03	1.54**			
F= 257(df= 15)					

<sup>\*</sup> p<0.05, \*\* p<0.01, \*\*\* p<0.001

그러나 이들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이민관련 특성 및 심리적 보호요인이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바르게 판별하는 정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에 사용된 133명의 이주여 성 중 판별된 문화적응유형이 관찰된 문화적응유형과 일치하는 경우는 36%인 48명에 그쳐, 40% 미 만의 낮은 판별력을 보였다. 주변화유형에 해당하는 48명의 여성 중 27.08%에 해당하는 13명만이 주 변화유형으로 바르게 판별되었으며 분리유형에 해당하는 29명의 여성 중 6.90%에 해당하는 2명의 여 성만이 분리유형으로 바르게 판별되었다. 동화유형은 19명 중 15.79%인 3명만이 동화유형으로 바르게 판별되었으며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37명 여성 중 81.08%에 해당하는 30명의 여성이 통합유형으로 바 르게 판별되었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이민관련 특성, 심리적 보호요인은 통합유형만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유형만이 이주여성의 특성에

<sup>\*</sup>p<0.05, \*\*p<0.01, \*\*\*p<0.001

의해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판별된 것은 동남아 변인이 문화적응유형의 판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동남아 국가 출신의 여성중 베트남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상으로 매우 높고, 베트남 여성은 통합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별분석을 위한 회귀식이 통합유형을 예측하는데 적절하도록 도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판별된 문화적응유형 n(%)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총 합
관찰된	주변화	13(27.08)	0(0.00)	3(6.25)	32(66.67)	48(100)
문화적응	분리	9(31.03)	2(6.90)	4(13.79)	14(48.28)	29(100)
유형	동화	4(21.05)	3(15.79)	3(15.79)	9(47.37)	19(100)
	통합	3(8.11)	3(8.11)	1(2.70)	30(81.08)	37(100)
총 합		29(21.80)	8(6.02)	11(8.27)	85(63.91)	133(100)

⟨표 16⟩ 이주여성의 특성을 통한 문화적응유형의 판별결과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첫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실태는 어떠하며 둘째, 이주여성의 특성이 이들의 문화적응유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셋째, 이주여성의 특성이 문화적응유형을 판별하는가의 연구문제를 탐색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이주문화의 적응수준 모두 낮은 주변화유형과, 원문화유지와 이주문화에 대한 적응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유형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국적, 낮은 연령, 짧은 교육년수, 직장 있음, 유배우자, 배우자와의 높은 연령 차, 적은 자녀의 수, 짧은 거주기간은 통합유형을 보인 이주여성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특성은 주로 베트남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유형에서 베트남 여성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높은 교육년수, 배우자와의 적은 연령차, 적은 수의 자녀, 높은 심리적 회복 력과 대처능력은 분리유형 이주여성의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연령, 많은 수의 자녀, 상대적으로 긴 한국거주기간, 낮은 회복력과 낮은 대처능력이 동화유형 이주여성의 특성으로 규명되었다. 한편 북 한・중국・일본국적, 특히 높은 연령과 높은 교육년수, 직업 없음, 무배우자, 배우자와의 낮은 연령차, 낮은 대처능력은 주변화유형 이주여성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여성의 개인적, 가족적, 이민관 런, 심리적 보호요인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판별하는 정도가 높지 않았으나, 통합유형만은 80%이상의 높은 판별력을 보였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적, 연령, 교육년수, 유배우자, 자녀의 수가 문 화적응유형을 유의미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와 유사성이 높은 북한이나 중국 출신 이주여성에서 주변화유형이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 되고 문화적 상이함이 상대적으로 큰 베트남 이주여성에서 통합의 유형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는

원문화와 이주문화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의 어려움이 낮다는 선행연구 (Berry, 1976: Minde, 1985)의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이주여성과 중국 조선족 이주여성은 한국인과 민족적 뿌리가 동일하여 한국문화습득에 어려움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의 오류를 지 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 중국 이주여성의 원문화유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했던 권복순과 차보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이는 원문화와 이주문화 사이의 문화적 유사성은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기보다 오히려 원문화상실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모두 배우자가 있는 반면 북한과 중국출신 이주여성은 배우자가가 없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배우자 유무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출신국가와 배우자 유무 사이의 상관이 출신국가에 따른 문화 적응유형의 차이를 만든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이주문화습득이 용이하다는 선행연구(Berry, 1976; Berry and Kim, 1987)의 주장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교육년수가 높은 이주여성이 주로 분리와 주변화유형에 속해 낮은 이주문 화습득도를 보였다. 캐나다와 미국 이주민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이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을 기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따른 심리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낮으 며. 높은 교육수준은 이주문화습득을 위한 자원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우리나라의 이주여 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을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한 경우가 많아(문경희, 2006)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실제로 결혼 후 사회·경제적 지위가 기대만큼 변화하는 경우는 드물다.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여성일수록 출신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갈등으로 한국문화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주여 성의 높은 교육수준이 문화적응과 부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거주기간은 통합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분리와 주변화유형에서 중간, 그리고 동화유형에서 가장 길게 나타난 것은 이주문화습득도가 이주초기에 높게 나타나고 이후 감소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는 애킨슨(Atkinson 외. 1998. 금명자 외. 2004 재인용)의 연구결과와 한국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권복순과 차보현(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동화유형의 이주여성에서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권복순과 차보현(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자녀를 한국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자녀양육의 방향성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이주여성의 이주문화습득 에는 긍정적으로, 원문화유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변화유형에 속한 여성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원인은 원문화와 이주문화가 충돌 한 갈등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처능력이 낮은 여성은 두 문화 모두를 포기하는 것으로 갈등상황에 대처하며 따라서 주변화유형에 속한 이주민 사이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Berry, 2005). 또한 동화유형에 속한 여성의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회복력이 낮은 여성의 경우. 이주문화습득의 과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리하거나 축소시켰던 원문화 정체성을 이주문화습득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화의 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리와 주변

화유형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높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 배우자와의 낮은 연령차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이 공통점들은 이주여성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여성들은 문화적응의 취약집단으로 인식되어 한국문화습득을 지원하는 선별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국으로부터의 원문화 정체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동화와 주변화유형에 속하는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 낮은 대처능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특성은 원문화유지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동일한 특성을 지닌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원문화유지에 초점을 둔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리고 문화적응유형의 판별분석 결과는 이주여성이 한국문화에 통합적으로 적응하는데 교육년수, 배우자 유무, 자녀의 수가 지니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교육년수가 적을수록 통합적 문화적응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여성은 자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한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실천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이주여성은 배우자를 대신하여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문화 전도자가 필요하며, 주변의 인적자원을 구조화하여 문화적 지지체계를 확대하도록 원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많은 수의 자녀는 원문화의 정체감을 와해하여 이주여성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자녀를 지닌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자국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원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한다.

이주여성의 개인적, 가족적, 이주관련 및 심리적 보호요인은 이들 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높은 연판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정책들은 이주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단순화하고 동일한 문화적응을 과정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평면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라 다면적이고 다원화된 접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문화적응의 다차원적 시각에 기초하여 문화적응의 다양한 유형에 주목하고자 했으며, 문화적응의 이해에 이주여성의 심리적 보호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주여성의 특성과 문화적응유형 사이의 연관성 탐색을 통해 이주여성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적 지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구성비에 차이가 크고, 의도적 표집의 특성상 연구대상의 대표성이 높지못하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 참고문헌

강인순. 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 간행).

강원도청. 2001. 『외국인 주부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토론회 자료집』. 춘천 : 강원도청.

강구섭. 1998. "북한 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곽민정. 2008. "결혼 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 간행).

- 권복순·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8(3): 109-134.
-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과정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6(2): 295-308. 김귀옥. 2000.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과 통일방안 모색." 『한국사회

과학』 22(3): 83-118.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김정선. 2004.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여성의 '가족'만들기를 통해 본 지역 가부장제의 변형 및 재구 성."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 집』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년 6월 4일. 5-41.
- 김진윤. 1997.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계논문집』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조사관리과.
- 김현숙.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
- 김희숙.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주노동자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마석지역 미등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남효진. 2008.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성 연구." 숙명여 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 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3.
- 문은희. 2007. "여성결혼 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여가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 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은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97-18.
-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광주 :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34.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양옥경·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정신보건과 사회 사업』 26: 79-110.
- 양정화. 2004.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NGO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유영은. 2006.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경기도 북부지역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 회 심포지움 발표 논문.
- 이애란. 2003. "남한거주 북한 이탈주민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문화

- 적응 전략유형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인선. 2004.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윤효, 2007.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주연. 2008. "다문화적 접근을 통한 아시아 민요 지도방안 연구 :코시안(Kosian)의 문화정체성 함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한만길. 1996. "북한 교육의 변화 동향과 남한교육에 주는 시사점." 『연세 교육학연구』 9: 9-19.
- 통계청. 각 해당년도. http://www.kosis.kr/
-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 Halsted.
- \_\_\_\_\_\_.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pp. 9-25. in A. M. Padilla(Eds.),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68.
- \_\_\_\_\_\_\_.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3): 697-712.
- Berry, J. W., and T. Blodel. 1982. "Psychological adaptation of Vietnamese refugees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Community Mental Health 1: 81-88.
- Berry, J. W., and U. Kim, 1987. "Accultural and mental health." Dasen, P., Berry J. W and N. Sartorius (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Health Towards Applications. London.
- Berry, J. W., U. Kim., T. Minde, and D. Mok.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erry, J. W., and M. Kostovick. 1983. "Psychological adaptation of Malay stuents in Canada." Paper presented at Third Asian Regional conference of IACCP, Kuala Lumpur.
- Berry, J. W., J. S. Phinney., D. L. Sam., P. Vedder.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2-332.
- Cabassa, L. J. 2003. "Measuring acculturation: Where we are and where we need to go."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 25(2): 127-146.
- Cuellar, I., B. Arnold., and R. Maldonado.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II: A revi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 Science* 17(3): 275.
- Lazarus, R. 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rin, G. and R. J. Gamba. 1996. "A New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for Hispanics: The B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BAS)." *Hispanic Journal of the Behavioral Sciences* 18(3): 297-316.
- Minde, T. 1985. "Foreign student adaptation at Queen's Univ." Unpublished B.A. Honoure Thesis, Queen's University.
- Redfield, R., R. Linton., and M. J. Herskovits.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 Rudmin, F. W. 2006. "Debate in science: The case of acculturation." http://www.anthroglobe.ca/docs/rudminf\_acculturation\_061204.pdf.
- Rutter, M. 2000. Resilience reconsidered: Conceptual considerations, empirical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In J. P. Shonkoffand S. J. Meisels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2nd ed., pp. 651-68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 D. L., and J. W. Berry. 1995. "Acculturative stress among young immgra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 10-24.
- Tebes, J. K., and J. Irish. T. 2000. Promoting resilience among sandwiched generation caregiving women through caregiver mutual help. Journal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 139 - 158.
- Tabes, J. K., J. Kaufman, J. Andopoz., and G. Racusin. 2001. Resilience and Family Psychosocial Processes Among Children of Parents with Serious Mental Disord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1): 115 - 136.

#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Pertaining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Choi, Hyej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e presented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which discriminated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among immigrated women in Korea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n acculturation. The study was designed as a social survey study. Data from 346 immigrated women were analyzed. Findings indicated that 37% of the respondents were marginalization, 30% were integration, 18% were segregation, and 15% were assimilation. Integration was associated with Vietnam nationality, younger age, lower level of education. Assimilation was related to longer period of residence, higher number of children, lower level of resilience. Marginalization was associated with North Korea, Japan, China nationality, older age, higher level of education. Segregation was related to older age, higher level of education, lower number of children. Also, Southeast nationality, age, level of education, spouse, and number of children significantly discriminated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Especially, the rate of correct discrimination was 80% only for integration. Practical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ism, immigrated women, acculturation, acculturation strategy, cultural issue, Berry.

[논문 접수일 : 2008년 11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월 30일]

<sup>\*</sup>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special research grant from Seoul Women's University (2008).